

#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현황 및 인식 연구: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을 중심으로 현황 및 인식 비교 분석\*

김성훈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연구원)\*\*

남정민 (단국대학교 지식재산벤처경영학과 주임교수)\*\*\*

## 국문 요약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라는 국정비전하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제1의 국정목표로 설정하며 청년실업문제해소와 국가차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창업을 통해 이루어 내려고 수많은 창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2015년 9월 8일 발표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 을 보면 새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크게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연구개발 (R&D) 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2017년에 추진한다. 이러한 창조경제의 방향성에 맞춰 본 연구는 현 창업지원사업이 올바른 방향성 여부를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들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창업가 113명, 예비 창업가 71명, 학생 60명, 창업관련 기관 종사자 47명, 투자자 16명, 일반인 50명, 기타 11명 포함 총 36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36.3%로 부정적이라는 응답 32.2%보다 다소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1.7%로 부정적이라는 응답 17.1%보다 2배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현재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나쁘다는 응답이 41.1%로 좋다는 응답 23.5%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향후 대한민국의 창업환경에 대하여는 좋아질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41.2%로 나빠질 것으로 응답한 비율 23%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중국에 비한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9%로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 17.7%보다 약 3배가량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창업경험유무에 따른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창업경험 횟수가 증가할수록 부정적임을 확인하였고, 이와 반대로 창업경험 횟수가 증가할수록 현재의 창업환경 및 향후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창업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할수록 창업가의 창업의사 또한 긍정적으로 변함을 확인하였고, 경제적 이유보다 비경제적인 이유의 창업동기로 시작한 창업가의 창업의사가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창업생태계의 현황 및 인식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여 전체적인 수준을 알 수 있었다. 차후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창업생태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춰서 더 정밀하게 창업생태계를 분석해서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할 필요가 있다.

핵심주제어 : 창업생태계, 창업의사, 창업동기, 창업인식, 창업환경

## 1. 서론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5년 2월의 청년실업률<sup>1)</sup>은 11.1%로 이는 외환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이다. 또한 한국은행 「국민소득」 조사는 2015년 1분기 경제성장률 (실질GDP성장률)은 2.5%로 2014년 1분기 3.9%에서 매분기별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경기침체 및 금융위기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적인 불황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문제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의 생존전략으로 창업 및 기업가정신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창업국가 미국 (Start-up America)'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창의와 혁신, 기업가정신'을 중심으로 경제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 수립과 실천을 위해 미 행정부의 주요 부처 (SBA, 재무부, 상무부 등)와 카우프만 재단, 구글 등의 민간 대기업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도 정부 주도하에 핀란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도전적 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창업 프레임워크 강화, 노키아 해고직원 창업지원 및 글로벌 벤처캐피털 활용 등의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벤처창업 및 기업가정신 활성화 등 10대 강령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창조산업이 국가 정책수단으로 처

\* 이 연구는 2015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제1저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연구원, dreamy7852@naver.com

\*\*\*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정보지식재산대학원 지식재산벤처경영학과 주임교수, namjmn@dankook.ac.kr

· 투고일: 2016-5-30 · 수정일: 2016-8-23 · 게재확정일: 2016-8-24

1) 만 15~29세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우리나라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산정 기준을 사용함.

음 등장한 나라는 영국이다. 1997년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는 ‘창의성 산업 특별 위원회 (Creative Industries Task Force)’를 설립했다. 그 결과 1997년부터 2006년 창조산업 연평균 성장률이 전체 경제성장률 (3%) 두 배를 상회하는 6.9%를 차지하게 되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창업 및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첫째, 취업난에 따른 고학력 실업문제 해소와 둘째, 창업을 통해 국가차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윤준, 2013). 미국 카우프만 재단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7년 미국에서 새로 창출된 일자리의 2/3가 창업기업에서 나왔고, 우리나라 또한 대표적 기술창업기업인 매출액 천 억 이상의 천억 벤처의 고용증가율이 대기업의 3배에 달하고 있다(벤처기업협회, 2012a). 이러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생존전략 방향을 따라 우리나라도 경기침체 및 청년실업률 증가와 같은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하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제1의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5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하고 1년이 경과한 2014년 5월에는 ‘성과점검 및 확산 계획’을 발표하는 등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 창업가, 투자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한 벤처기업과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4조 328억 원을 투입, 창업자 1만 3000명을 육성하고 정부 40%, 외국투자자 60%의 투자로 2000억 원을 지원하여 한국형 요즈마 펀드 (Yozma fund)를 조성해 전도유망한 국내 기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2015년 4월 벤처기업 수는 30,331개로 10년 동안 약 3배가량 증가 (벤처기업협회, 2015)하는 등 외형적으로 우리나라의 창업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한국의 기업가정신의 실상과 과제’에 따르면 2015년 글로벌 기업가정신지수 (GEI,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순위 28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2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연구원, 2015). 창업 활성화를 지향하는 정부의 수많은 지원 사업들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창업선진국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이러한 수많은 지원 사업들이 창업가, 예비 창업가, 학생들과 같이 실제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사람들과 소통되지 않은 일방적인 지원이라는 데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현황 및 인식을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들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로 이 비교분석을 통해 현 대한민국 창업생태계를 진단하고자 한다. 나아가 앞으로 창업지원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현황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현황 및 인식에 대한 설문분석을 수행하였다. 4장에서는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현황 및 인식의 설

문분석 결론 및 바람직한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의를 제시하였다.

## II.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현황

### 2.1. 창업지원사업 및 창업동향

정부는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 지원 사업으로 창업선도대학육성,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 등 창업 준비·실행지원 사업 16개, 엔젤투자매칭펀드,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초기성장지원 사업 12개, 스마트창업터, 스마트벤처창업학교 등 특정분야 또는 대상지원 사업 14개로 총 42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65개의 창업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표 1>, <표 2> 참조).

<표 1> 2015년도 중앙부처 창업지원사업

사업명	
창업 준비·실행 지원	중소기업청 - 청소년비즈쿨, 창업아카데미 운영, 창업대학원, 대학 기업가센터 지원사업,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 운영, 대한민국 창업리그·슈퍼스타V(왕중왕전),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창업선도대학육성,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 창업인턴제,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TIPS),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시제품제작터 운영,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행정자치부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초기 성장 지원	중소기업청 - 창업성장 기술개발,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운영, 엔젤투자매칭펀드, 청년창업펀드, 창업기업 보증 지원(신용보증기금), 창업기업보증(기술보증기금), 예비창업가 사전보증(기술보증기금), 시니어창업지원(지역신보), 창업기업연대보증면제 특례보증(지역신보), 재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자금
특정 분야 대상 지원	중소기업청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인창조기업 마케팅지원, 스마트창업터,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운영,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참살이 실습터 지원, 재창업자금 산업통상자원부 - 대체산업창업지원(용자)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기업인큐베이팅 육성, 창업발전소, 스타트업 지원, 국제공동제작영화 제작비용 지원, 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

자료 : 중소기업청, 2015년 창업지원사업

<표 2> 2015년도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사업명	
서울	챌린지 1000 프로젝트, 장년창업센터 운영, 서울 아스피린센터 운영, 서울창업센터 운영, 디자인창조기업 육성 - DMC창업센터 운영, DMC 첨단산업센터 관리운영, 동북권 첨단산업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운영
부산	부산 청장년 창업 지원, 청년창업특례자금, 부산모바일센터 구축운영,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지원센터, 대학 창업동아리 지원
대구	청년창업지원사업, 대구엔젤투자 매칭펀드 운영, 여성회관 창업보육센터 운영
광주	엔젤투자매칭펀드, 구조고도화 자금지원,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 공방창업지원, 청년창조기업 지원사업,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강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지원 자금 지원, 창업초기지원자금 지원, 청년창업프로젝트, 청년창업 프로젝트 사후관리, 창업보육센터 특화 운영 지원, 창업선도대학 육성, 강원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용, 중소기업 지원펀드 운용, 대학생 창업캠프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

	지원, 창업동아리 활성화 지원, 시니어 창업센터 운영지원, 스마트 창작터 운영지원
울산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지식기술 청년창업 지원사업, 창업스타기업 육성사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여성시장 창업자금 지원
충남	청년CEO 500프로젝트,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전북	창업 꿈나무 사업화 지원, 4050 행복 창업 프로젝트,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입주기업 지원
경북	우수창업보육센터운영, 벤처창업동아리 지원, 장년창업지원사업, 청년창업지원사업, 청년CEO육성사업,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경남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경남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 경남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지역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제주	중소기업 창업 프로그램 운영사업, 창업아이템 기술개발 지원, 창업선도대학 육성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향토자원 활용형 창업지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지원
세종	창업보육지원, 창업교육 및 활성화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자료 : 중소기업청, 2015년 창업지원사업

<표 1> 과 <표 2> 의 2015년도 창업지원사업의 대부분은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제조 및 지식서비스업에 치중되어있다. 하지만 통계청의 자료조사에 따르면 2013년 창업기업 1,638,739개 중 제조업은 8.7%, 서비스업은 22%이고 도매 및 소매업은 29.2%, 숙박 및 음식점업은 27.1%로 약 57%가 생계형 창업임을 나타내고 있다(<표 3> 참조). 이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창업생태계가 기술형 창업이 장려될 수 있도록 바람직하게 구축되지 않았고 창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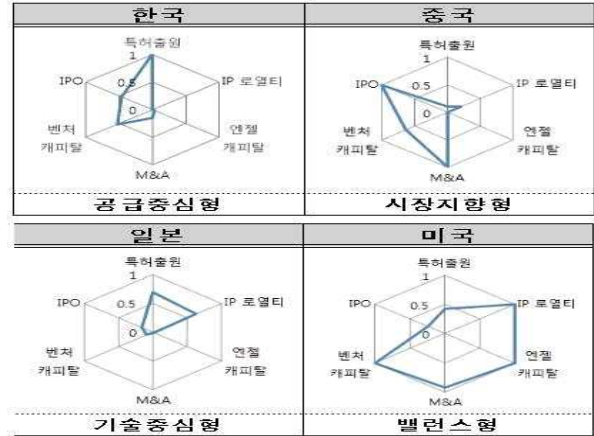
<표 3> 2013년 창업기업 업종별 통계

2013년 전체 창업기업 수	1,638,739개
제조업	8.7 %
광업	0.0 %
건설업	3.1 %
운수업	9.3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9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4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3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2 %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0 %
도매 및 소매업	29.2 %
숙박 및 음식점업	27.1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9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2 %
교육 서비스업	6.6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7 %
임대업(부동산제외)	0.4 %

자료 : 중소기업청, 2015년 창업기업실태조사

## 2.2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현황

2014년 중소기업청이 내놓은 ‘한중일 창업-벤처 생태계 비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M&A, IP, IP 로열티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지만, 특허출원과 벤처 캐피탈 부분이 발달한 “공급중심형”생태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 중소기업청, 2014

<그림 1> 국가별 생태계 그래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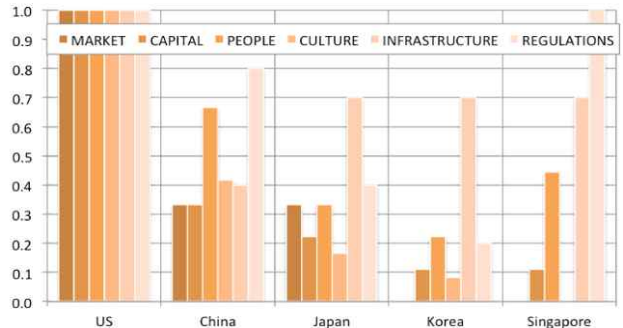
<그림 1> 국가별 생태계 그래프 비교를 보면 2013년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의 창업생태계 구축 목표인 『창업→성장→회수→재투자→제도전』의 바람직한 창업생태계가 아직 구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공급중심형이고 IPO와 M&A가 활성화 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창업기업의 3년 후 생존율은 41%로 OECD 주요 국가 창업기업 생존율 중에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 참조).

<표 4> OECD 주요국별 창업기업 생존율

국가	3년 후 생존율
룩셈부르크	66.8%
호주	62.8%
이스라엘	55.4%
미국	57.6%
이탈리아	54.8%
한국	41.0%

자료 : OECD, 2013

Benjamin Joffe(2012)는 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를 Market (시장), Capital (자본), People (인력), Culture (문화), Infrastructure (인프라), Regulations (규제)의 6가지로 정의하였다. 아래의 <그림 2>은 전 세계적인 기술혁신의 상징인 실리콘밸리와 아시아 다른 지역들을 상기 6가지 요소로 비교한 표이다.



자료 : Benjamin Joffe, 2012

<그림 2> The Six Necessary Categories To Build The Next Silicon Valley

위 <그림 2>을 보면 우리나라는 6가지 요소 중 우리나라는 특히 시장과 창업문화가 크게 뒤쳐져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인식 및 현황에 대한 설문분석2)

#### 3.1 조사개요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인식 및 현황과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sup>2)</sup> 설문조사 (창업가 113명, 예비 창업가 71명, 학생 60명, 창업 관련 기관 종사자 47명, 투자자 16명, 일반인 50명, 기타 11명 포함 총 368명)를 실시하였다. 설문응답자의 자세한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인구통계학적 분석결과

측정내용		인원(명)	퍼센트
소속	창업가	113	30.7
	예비 창업가	71	19.3
	학생	60	16.3
	창업 관련 기관 종사자	47	12.8
	투자자	16	4.3
	일반인	50	13.6
	기타	11	3.0
학생여부	고등학생 이하	5	1.4
	대학(교) 재학생	75	20.4
	전문학사	19	5.2
	학사	151	41.0
	석사	76	20.7
	박사	37	10.1
	결측	5	1.4
전공	공학 분야	121	32.9
	경상계열 분야	89	24.2
	스포츠 분야	3	0.8
	문화예술 분야	48	13.0
	인문사회 분야	71	19.3
	자연과학 분야	28	7.6
	기타	7	1.9
	결측	1	0.3
성별	남자	264	71.7
	여자	104	28.3
연령	10대	8	2.2
	20대	117	31.8
	30대	117	31.8
	40대	79	21.5
	50대	37	10.1
	60대	5	1.4
	결측	5	1.4
결혼유무	미혼	198	53.8
	기혼	168	45.7
	결측	2	0.5
부모님이 사업가나 전문경영인 유무	예	110	29.9
	아니오	256	69.6
	결측	2	0.5

창업경험 유무	없음	216	58.7
	1회	90	24.5
	2회	36	9.8
	3회	16	4.3
	4회 이상	10	2.7
현재 창업 유무	아니오	203	55.2
	예(0-1년)	51	13.9
	예(1-3년)	56	15.2
	예(3-5년)	18	4.9
	예(5년 이상)	23	6.3
	결측	17	4.6
현재 창업하신 분야나 창업에 관심 있는 분야	제조업	56	15.2
	도매 및 소매업	29	7.9
	숙박 및 음식점업	27	7.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9	24.2
	금융 및 보험업	6	1.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4	12.0
	교육서비스업	45	12.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	1.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0	10.9
	농업, 임업 및 어업	7	1.9
	기타	9	2.4
창업계획	결측	10	2.7
	전혀 아니다	18	4.9
	아니다	21	5.7
	보통이다	63	17.1
	그렇다	107	29.1
	매우 그렇다	78	21.2
	현재 창업가	80	21.7
	결측	1	0.3
소득수준 (동일연령대 대비)	매우 낮은 수준	57	15.5
	낮은 수준	76	20.7
	보통이다	167	45.3
	높은 수준	54	14.7
	매우 높은 수준	10	2.7
	결측	4	1.1

#### 3.2 설문조사 문항분석 결과

아래의 <표 6>은 창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36.3%로 부정적이라는 응답 32.2%보다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예비 창업가의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평균 3.17로 창업가 (평균 3.03)와 학생 (평균 3.05)보다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2015년 7월 ~ 8월에 창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룹을 대상으로 시행함

<표 6>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구분	창업가	예비 창업가	학생	전체
매우 부정적	6(5.4%)	1(1.4%)	2(3.3%)	9(3.7%)
다소 부정적	32(28.6%)	19(27.1%)	18(30.0%)	69(28.5%)
보통이다	38(33.9%)	22(31.4%)	16(26.7%)	76(31.4%)
다소 긍정적	25(22.3%)	23(32.9%)	23(38.3%)	71(29.3%)
매우 긍정적	11(9.8%)	5(7.1%)	1(1.7%)	17(7.0%)
합계	112(100.0%)	70(100.0%)	60(100.0%)	242(100.0%)
평균	3.03	3.17	3.05	3.07
표준편차	1.061	0.963	0.946	1.003
차이검증 (ANOVA/Post)	F : 0.469 / Chi-Square : 10.099**			

아래의 <표 6>은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떤 거 같은가에 대한 질문인데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1.7%로 부정적이라는 응답 17.1%보다 2배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6>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예비 창업가가 느끼는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평균이 3.44로 창업가 (평균 3.13)와 학생 (평균 3.39)보다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구분	창업가	예비 창업가	학생	전체
매우 부정적	2(1.8%)	0(0.0%)	0(0.0%)	2(0.8%)
다소 부정적	24(21.4%)	9(12.7%)	6(10.5%)	39(16.3%)
보통이다	46(41.1%)	27(38.0%)	26(45.6%)	99(41.3%)
다소 긍정적	38(33.9%)	30(42.3%)	22(38.6%)	90(37.5%)
매우 긍정적	2(1.8%)	5(7.0%)	3(5.3%)	10(4.2%)
합계	112(100.0%)	71(100.0%)	57(100.0%)	240(100.0%)
평균	3.13	3.44	3.39	3.28
표준편차	0.829	0.806	0.750	0.814
차이검증 (ANOVA/Post)	F : 3.923*** / Chi-Square : 10.208**			

<표 7>은 현재의 창업환경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나쁘다는 응답이 41.1% 좋다는 응답 23.5%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전체 평균은 2.77로 현재의 창업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좋지 않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별로는 예비 창업가의 평균이 2.45로 창업가 (평균 3.00)와 학생 (평균 2.71)보다 현재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가들이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는데 현재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은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정책을 좀 더 개선해야한다는 시사점을 알 수 있다.

<표 9> 현재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

구분	창업가	예비 창업가	학생	전체
매우 나쁘다	14(12.4%)	7(9.9%)	6(10.2%)	27(11.1%)
나쁘다	24(21.2%)	32(45.1%)	17(28.8%)	73(30.0%)
보통이다	37(32.7%)	25(35.2%)	24(40.7%)	86(35.4%)
좋다	24(21.2%)	7(9.9%)	12(20.3%)	43(17.7%)
매우 좋다	14(12.4%)	0(0.0%)	0(0.0%)	14(5.8%)
합계	113(100.0%)	71(100.0%)	59(100.0%)	243(100.0%)
평균	3.00	2.45	2.71	2.77
표준편차	1.195	0.807	0.911	1.051
차이검증 (ANOVA/Post)	F : 6.708*** / Chi-Square : 28.891***			

아래 <표 9>는 향후 한국의 창업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41.2%로 나빠질 것으로 응답한 비율 23%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별로는 학생의 평균이 3.34로 창업가 (평균 3.22)와 예비 창업가 (평균 3.04)보다 높았고, 예비 창업가들의 향후 창업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10> 향후 한국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

구분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	전체
매우 나빠짐	8(7.1%)	3(4.2%)	1(1.7%)	12(4.9%)
나빠짐	20(17.7%)	17(23.9%)	7(11.9%)	44(18.1%)
현수준과 동일	35(31.0%)	27(38.0%)	25(42.4%)	87(35.8%)
좋아짐	39(34.5%)	22(31.0%)	23(39.0%)	84(34.6%)
매우 좋아짐	11(9.7%)	2(2.8%)	3(5.1%)	16(6.6%)
합계	113(100.0%)	71(100.0%)	59(100.0%)	243(100.0%)
평균	3.22	3.04	3.34	3.20
표준편차	1.075	0.917	0.822	0.976
차이검증 (ANOVA/Post)	F : 1.559 / Chi-Square : 10.572**			

<표 10>을 통해 중국에 비한 우리나라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9%로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 17.7%보다 약 3배가량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별로는 예비 창업가의 중국에 비한 우리나라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이 평균 2.54로 창업가 (평균 2.59)와 학생 (평균 2.61)보다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중소기업청이 내놓은 ‘한·중·일 창업·벤처 생태계 비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IPO와 M&A가 활성화 되어있는 창업생태계가 구축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M&A가 활성화 되지 않은 창업생태계이다. 창업기업의 출구전략인 IPO와 M&A 활성화에 정부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창업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표 11> 중국에 비한 우리나라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

구분	창업경험 유무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매우 나쁜 편	8(7.1%)	5(7.1%)	5(8.5%)	18(7.4%)
나쁜 편	55(48.7%)	30(42.9%)	25(42.4%)	110(45.5%)
유사	27(23.9%)	27(38.6%)	17(28.8%)	71(29.3%)
좋은 편	21(18.6%)	8(11.4%)	12(20.3%)	41(16.9%)
매우 좋은 편	2(1.8%)	0(0.0%)	0(0.0%)	2(0.8%)
합계	113(100.0%)	70(100.0%)	59(100.0%)	242(100.0%)
평균	2.59	2.54	2.61	2.58
표준편차	0.932	0.793	0.910	0.885
차이검증 (ANOVA/Post)	F : 0.106 / Chi-Square : 7.900*			

<표 12> ~ <표 16>는 <표 7> ~ <표 11>까지의 질문을 응답자 특성을 창업경험 유무로 바꾸어 분석한 결과이다. 아래 <표 12>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창업경험횟수가 증가할수록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창업인식이 긍정적인 환경이 되어야 개별 창업횟수가 증가한다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표 12> 창업경험 유무에 따른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구분	창업경험 유무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전체
매우 부정적	2(1.6%)	3(4.4%)	2(6.9%)	2(12.5%)	9(3.7%)
다소 부정적	38(29.5%)	17(25.0%)	12(41.4%)	2(12.5%)	69(28.5%)
보통이다	42(32.6%)	25(36.8%)	5(17.2%)	4(25.0%)	76(31.4%)
다소 긍정적	41(31.8%)	19(27.9%)	6(20.7%)	5(31.3%)	71(29.3%)
매우 긍정적	6(4.7%)	4(5.9%)	4(13.8%)	3(18.8%)	17(7.0%)
합계	128(100.0%)	68(100.0%)	29(100.0%)	16(100.0%)	241(100.0%)
평균	3.09	3.06	2.93	3.31	3.07
표준편차	0.927	0.976	1.223	1.302	1.003
차이검증 (ANOVA/Post)	F : 0.505 / Chi-Square : 19.270***				

하지만 <표 13> 창업경험 유무에 따른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면 <표 12>의 창업경험 유무에 따른 창업에 대한 인식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옴을 알 수 있다. <표 13>의 결과는 창업경험 횟수가 증가할수록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으로 변한다고 나타내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창업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바꾸어야한다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표 13> 창업경험 유무에 따른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구분	창업경험 유무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전체
매우 부정적	0(0.0%)	1(1.5%)	0(0.0%)	1(5.9%)	2(0.8%)
다소 부정적	17(13.4%)	10(14.9%)	8(27.6%)	4(23.5%)	39(16.3%)
보통이다	60(47.2%)	23(34.3%)	10(34.5%)	6(35.3%)	99(41.3%)
다소 긍정적	44(34.6%)	29(43.3%)	11(37.9%)	6(35.3%)	90(37.5%)
매우 긍정적	6(4.7%)	4(6.0%)	0(0.0%)	0(0.0%)	10(4.2%)
합계	127(100.0%)	67(100.0%)	29(100.0%)	17(100.0%)	241(100.0%)
평균	3.31	3.37	3.10	3.00	3.28
표준편차	0.761	0.868	0.817	0.935	0.814
차이검증 (ANOVA/Post)	F : 1.474 / Chi-Square : 16.195**				

아래 <표 14>은 창업경험 유무에 따른 현재의 창업환경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창업경험 횟수가 증가할수록 현재의 창업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험은 사회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표 14> 창업경험 유무에 따른 현재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

구분	창업경험 유무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전체
매우 나쁘다	10(7.8%)	12(17.6%)	2(6.9%)	3(17.6%)	27(11.1%)
나쁘다	46(35.7%)	20(29.4%)	5(17.2%)	2(11.8%)	73(30.0%)
보통이다	52(40.3%)	18(26.5%)	11(37.9%)	5(29.4%)	86(35.4%)
좋다	19(14.7%)	13(19.1%)	8(27.6%)	3(17.6%)	43(17.7%)
매우 좋다	2(1.6%)	5(7.4%)	3(10.3%)	4(23.5%)	14(5.8%)
합계	128(100.0%)	68(100.0%)	29(100.0%)	17(100.0%)	241(100.0%)
평균	2.67	2.69	3.17	3.18	2.77
표준편차	0.878	1.188	1.071	1.425	1.051
차이검증 (ANOVA/Post)	F : 2.876** / Chi-Square : 29.478***				

<표 15>를 살펴보면 향후 한국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도 창업경험 횟수가 증가할수록 긍정적으로 변함을 알 수 있다. 전체 평균을 비교해보면 좋아진다는 응답이 41.2%로 나빠진다는 응답 23%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별로는 3회 이상 창업경험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의 평균이 3.59로 다른 응답자에 비해 가장 높았다

<표 15> 창업경험 유무에 따른 향후 한국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

구 분	창업경험 유무				
	없음	1회	2회	3회이상	전체
매우 나빠짐	3(2.3%)	7(10.3%)	2(6.9%)	0(0.0%)	12(4.9%)
나빠짐	25(19.4%)	11(16.2%)	5(17.2%)	3(17.6%)	44(18.1%)
현수준과 동일	53(41.1%)	21(30.9%)	8(27.6%)	5(29.4%)	87(35.8%)
좋아짐	44(34.1%)	24(35.3%)	11(37.9%)	5(29.4%)	84(34.6%)
매우 좋아짐	4(3.1%)	5(7.4%)	3(10.3%)	4(23.5%)	16(6.6%)
합계	123(100.0%)	65(100.0%)	23(100.0%)	17(100.0%)	208(100.0%)
평균	3.16	3.13	3.28	3.59	3.20
표준편차	0.855	1.105	1.099	1.064	0.976
차이검증 (ANOVA/Peason)	F : 1.128 / Chi-Square : 19.992***				

<표 16> 창업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창업자의 창업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창업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할수록 창업자의 창업의사 또한 긍정적으로 변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바람직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결과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의 창업의사는 부모의 창업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바람직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창업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부모의 창업에 대한 인식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표 16> 창업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따른 창업의사

(본인의) 창업의사	창업에 대한 부모의 인식					전체
	매우 부정적	다소 부정적	보통이다	다소 긍정적	매우 긍정적	
전혀 아니다	3(2.0%)	1(1.5%)	1(1.2%)	0(0.0%)	0(0.0%)	5(2.2%)
아니다	0(0.0%)	4(6.2%)	1(1.2%)	0(0.0%)	0(0.0%)	5(2.2%)
보통이다	1(8.3%)	10(15.4%)	10(11.6%)	6(11.3%)	1(10.0%)	28(12.4%)
그렇다	0(0.0%)	19(29.2%)	23(33.7%)	15(28.3%)	2(20.0%)	60(28.3%)
매우 그렇다	4(33.3%)	18(27.7%)	17(19.8%)	13(24.5%)	1(10.0%)	53(23.3%)
현재 창업자	4(33.3%)	13(20.0%)	23(26.6%)	19(35.8%)	6(60.0%)	70(31.0%)
합계	12(100.0%)	61(100.0%)	61(100.0%)	51(100.0%)	10(100.0%)	226(100.0%)
평균	3.17	3.35	3.67	3.85	4.20	3.62
표준편차	2.082	1.230	1.152	1.045	1.135	1.228
차이검증 (ANOVA/Peason)	F : 2.284** / Chi-Square : 50.040***					

\*\*\*, \*\*, \* 각각 1%, 5%, 10%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

아래 <표 17>은 창업동기가 비경제적이냐 경제적이냐에 따른 창업의사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실업 및 퇴직이나 더 많은 수입(소득)을 위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창업은 자아실현 및 사회에 공헌(기여)하기 위한 비경제적 이유의 창업에 비해 창업의사가 낮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생계수준을 넘어 자아실현 및 사회적 공헌 등의 이유가 창업을 하는데 큰 동기가 된다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표 17> 창업동기에 따른 창업의사

창업의사	창업동기		
	비경제적	경제적	전체
전혀 아니다	0(0.0%)	3(5.8%)	3(1.3%)
아니다	2(1.1%)	1(1.9%)	3(1.3%)
보통이다	24(13.1%)	6(11.5%)	30(12.8%)
그렇다	51(27.9%)	18(34.6%)	69(29.4%)
매우 그렇다	41(22.4%)	15(28.8%)	56(23.8%)
현재 창업자	65(35.5%)	9(17.3%)	74(31.5%)
합계	183(100.0%)	52(100.0%)	235(100.0%)
평균	3.78	3.31	3.68
표준편차	1.103	1.276	1.157
차이검증 (ANOVA/Peason)	F : 6.957*** / Chi-Square : 16.453***		

아래 <표 18>은 창업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인데 필요하다는 응답이 82.7%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4.5%보다 78.2%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응답자별로는 창업가의 평균이 4.36으로 예비창업가(평균 4.34)와 학생(평균 4.15)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창업교육은 창업가, 예비창업가, 학생들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표 18> 창업교육에 대한 필요성

구 분	창업가	예비 창업가	학생	전체
전혀 불필요	2(1.8%)	0(0.0%)	0(0.0%)	2(0.8%)
거의 불필요	2(1.8%)	4(5.7%)	3(5.0%)	9(3.7%)
보통이다	18(15.9%)	6(8.6%)	7(11.7%)	31(12.8%)
약간 필요	22(19.5%)	22(31.4%)	28(46.7%)	72(29.6%)
매우 필요	69(61.1%)	38(54.3%)	22(36.7%)	129(53.1%)
합계	113(100.0%)	70(100.0%)	60(100.0%)	243(100.0%)
평균	4.36	4.34	4.15	4.30
표준편차	0.936	0.866	0.820	0.889
차이검증 (ANOVA/Peason)	F : 1.215 / Chi-Square : 20.698***			

#### IV. 결론 및 토의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창업가, 예비 창업가, 학생들이 느끼는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인 편은 아니다. 다만, 현재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11>의 중국에 비한 우리나라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 또한 절반 이상이 나쁜 편이라고 응답한 것과도 비슷한 부분이다. <그림 1> 2014년 중소기업청이 내놓은 ‘한중일 창업-벤처 생태계 비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IPO와 M&A가 활성화 되어있는 창업생태계가 구축되어 있고, 우리

나라는 M&A가 활성화 되지 않은 창업생태계이다(김도현, 2013). 창업기업의 출구전략인 IPO와 M&A 활성화는 바람직한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양현봉, 박종복, 2011). 출구전략이 마련되지 않고 창업을 부추기는 것은 <표 5>의 창업기업의 3년 후 생존율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창업가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로 장기적으로는 국가 성장 동력 및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IPO와 M&A 활성화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하고, 창업선진국의 대기업들처럼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창업기업 M&A에 적극적으로 행동해줘야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선순환구조의 창업생태계가 구축 될 수 있다(이대기, 2014). 두 번째로 (본인의) 창업의 사에 창업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지금까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 및 창업교육은 대부분이 창업가, 예비 창업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또한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나라의 정서상 부모 또는 가족의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바람직한 창업생태계 및 창업에 대한 인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인 부모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을 먼저 바꿔야 하며, 그들을 위한 맞춤형 창업지원사업 및 교육이 요구된다. 세 번째로 창업경험유무에 따른 창업생태계에 대한 인식, 향후 한국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점차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창업생태계가 과거에 비해서는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로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현 대한민국 창업생태계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창업생태계를 창업가, 대학 등 창업지원기관, 투자자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지속적으로 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으로 정의하고 있다(박재환 외, 2012). 바람직한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창업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창업문화를 만들려면 먼저 창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생태계의 현주소를 개괄적으로 알아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 추후 연구는 기존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창업생태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더 정밀하게 창업생태계를 분석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

김도현(2013), 창업생태계 강화와 대기업의 역할, *벤처창업연구*, 8(2), 83-91  
 김주미·박재필(2013),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모델 수립에 관한 연구, *정보화연구*, 10(2), 237-249  
 박재환·박명수·김대엽(2012), *창업정책 현황과 창업생태계 관점에서의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2012 한국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 서울: 한국벤처창업학회  
 벤처기업협회(2012a), *2012 청년벤처 실태조사*, 서울: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2015), *2015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서울: 벤처기업협회  
 양현봉·박종복(2011),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대전: 산업연구원

이대기(2014),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과 개선점, *주권금융브리핑*, 23(23), 3-9.  
 이승환(2013), *혁신형 창업 활성화의 비결 플랫폼*,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이윤준(2013), 창조경제 시대의 창업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 191, 10-21.  
 중소기업청(2014), *국가별 생태계 그래프 비교*, 대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2015), *2015년 창업기업실태조사*, 대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2015), *2015년 창업지원사업*, 대전: 중소기업청  
 한국경제연구원(2015), *한국의 기업가정신의 실상과 과제*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은행(2015), *국민소득*, 2016.6.4 <https://ecos.bok.or.kr/>

Bank of Korea(2015), *National Income*, 2016.6.4 <https://ecos.bok.or.kr/>  
 Benjamin Joffe(2012), *The Six Necessary Categories To Build The Next Silicon Valley*, 2012.9.1, <https://techcrunch.com/2012/09/01/ecosystem-101-the-six-necessary-categories-to-build-the-next-silicon-valley>  
 Kim, D. H.(2013), Strengthening the role of entrepreneurship ecosystems and large companies, *Asia-Pacir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2), 83-91  
 Kim, J. M. & Park, J. P(2013), A Study on Establishment of Entrepreneurship Model in Korea,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chitecture*, 10(2), 237-249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2015), *The reality and task of entrepreneurship in Korea*, Seoul;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2012),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100 Billion Ventures*, Seoul: 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  
 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2015), *2015 Venture Business Precision Survey*, Seoul: 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  
 Lee, D. G.(2014), Status of Korean entrepreneurship ecosystem and improvements, *the financial weekly briefing*, 23(23), 3-9  
 Lee, S. H.(2013), *The secret of innovative start-ups enabled platform*, Seoul: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Lee, Y. J.(2013), Enable the creation of start-up economy measures, *Science & Technology Policy*, 191, 10-21  
 Park, J. H., Park, M. S & Kim, D. Y.(2012), Youth entrepreneurship Activation Plan , *Asia-Pacir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2012, 132-14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2014), *Comparison of ecosystem graphs by country*, Daejeon: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2015), *Actual Survey of Founding Firms in 2015*, Daejeon: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2015), *2015 Start-up Support Project*, Daejeon: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Yang, H. B & Park, J. B.(2011), *Youth entrepreneurship ecosystem and activating*, Daejeon: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Republic of Korea Entrepreneurship Ecosystem Status and Recognition Research: Focusing on Entrepreneurs, Entrepreneurs Preliminary, Student Centered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tatus and Recognition\*

Kim, Sung Hoon\*\*

Nam, Jung min\*\*\*

## Abstract

The government set up "national happiness", the hope of a new era of national vision under 'job center of the creative economy' to achieve by national goals in the first and figure achiev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new growth engines of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 solve and national level there are a number of business start-up support. September 8, 2015 announced the Government's look at the '2016 Year of the budget, the government for new growth engines greatly promoted the venture-entrepreneurship ecosystem revitalization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R & D) the business for enhanced performance in 2017.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urrent creative economy business incubator at the comparison whether the correct orientation mainly entrepreneurs, entrepreneurs preliminary recognition of student entrepreneurship ecosystem. Entrepreneurs 113 people in that way, 71 people pre-entrepreneurs, students 60, workers were founding agencies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47 people, 16 people Investors, 50 public and 11 additional persons including a total of 368 people. This study is in line with the orientation of these entrepreneurs to create economic status and recogn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ntrepreneurship ecosystem, pre-entrepreneurs, students will examine the comparative analysis around. Analysis, social perception of entrepreneurship is somewhat higher than it was confirmed that the negative response of 32.2% to 36.3% of positive response. Social awareness of entrepreneurs showed a 2-fold higher response rate than the negative of response of 17.1% to 41.7% responding that positive recognition for the current start-up environment is bad, the response is good response to higher response rate than 23.5% to 41.1% It showed. The percentage of responses that better respect the entrepreneurship environment of the future Republic of Korea showed a higher response rate than the rate of 23% in response to deteriorate to 41.2%, with 52.9% awareness is the percentage that responded that the bad part about the ruthless Korea's entrepreneurship environment in China good part as response rate approximately three times greater than the 17.7% showed high response rates. Social awareness of entrepreneurs experience the presence of the founding start-up experience was confirmed that the more negative the number increases, the more the contrary the number of start-up experience increased awareness of the current and future environment of entrepreneurship was identified as a positive entrepreneurship environment. Also recognized was confirmed to change the parent of the more positive changes in the start-up of entrepreneurs doctor also positive about entrepreneurship, start-up entrepreneurs start with a doctor's motivation for founding non-economic reasons than for economic reasons has confirmed Higher. This study showed the overall level overview analysis of the status and recogn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ntrepreneurship ecosystem. Future studies need to be a proposal for an existing previous studies for more precise direction to go forth to analyze the entrepreneurship ecosystem with a focus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ntrepreneurship ecosystem.

*Key words: entrepreneurship ecosystem, founding physician, entrepreneurship motivation, entrepreneurship awareness, start-up environment*

\*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support of the Dankook University research fund for the 2015 school year

\*\* Researcher, Korea Entrepreneurship Foundati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Team, dreamy7852@naver.com

\*\*\* Professor, Intellectual Property venture business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namjm@dankook.ac.kr